

탈북자 청소년 양육을 위한 여명학교 유대열 교목 말씀 전해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2일 저녁 수요일성경공부시간에는 탈북자 청소년 양육을 위한 여명학교의 유대열 교목과 교장, 교감 선생님이 수요일 예배에 참석해 주었다. 여명학교는 북한의

양이고, 북한에서 공작원이라는 고위직에 종사하다 결국 압록강을 건너 탈북하여 중국에 몇 년간 숨어 지내다가 결국 남한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유목사는 남

탈북자와 성도들을 지원 하는 여러 교회들이 힘을 모아 세운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의 이름이다. 이 학교의 교목을 맡고 있는 유대열 목사는 고향이 북한 평안으로 들어와 신학교 과정을 마치고 현재 합동교단의 목사가 되었다. 유목사는 탈북 직후 탈북자의 신분으로 중국에 숨어 살면서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보살피며 기도해주고 성경을 건네주고 교회를 소개해주며 복음을 전해준 한 일본 유학생의 지극한 도움 때문에 그는 결국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괴로움과 고난을 몸소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결국은 자신을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라고 낮추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며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임같이 유목사 또한 그러한 힘겨운 삶을 살았다. (2면에서 계속)

정립구역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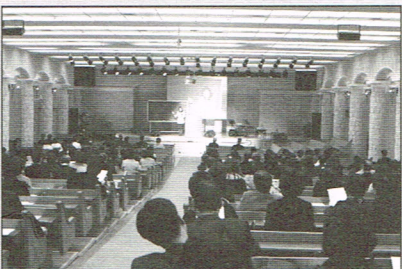
4교구 1구역(정립구역: 광진구 구의동 소재 정립전자에 근무하는 장애인교우들로 이루어진 구역)에서는 1월 29일(토요일) 저녁에 교회인근 음식점에서 구역원들과 가족들 30여명이 모여 그동안 교구목사로서 정립구역을 각별한 사랑으로 인도해준 윤덕영목사와 그 가족을 초대하여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미국 샌디에고 주님의교회에 부임하기 위해 준비 중인 윤목사는 사모와 두 자녀가 함께 참석하여 만찬을 나누면서 헤어져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한 가족답게 서로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고 안부를 자주 전하자고 말했다. 지난번 함즐함울에서 밝혔듯이, 윤덕영 목사가 농부의 심정으로 이민교회를 섬기고자 할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 주실 것을 함께 기원하며 그 동안 한 구역 안에서 사랑을 함께 주고 받은 만남이 이 모임을 통해 마쳤다.



수련회 소식

2005 신년 제직수련회

이미지 메이킹 전문강의를 통해 교회 분위기 쇄신 도모



2005년 신년 제직수련회가 지난 주일 오후 3시에 중예배실에서 열렸다. 제직들이 속속 도착하여 주님께 뜨거운 찬양을 드리며 마음가짐을 바로하는 시간이었다. 제직수련회의 특강은 이영희교수가 '현대인의 교양과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교회의 기둥같은 제직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때 친절한 마음과 상냥한 태도로 섬겨야한다고 했다.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형성하는 기본적인 예절에 대해 배웠다. 배운것을 먼

저 교회안에서 실천하여 우리 교회 이미지를 친절한 교회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특강 이후에는 담임목사를 통해 주님의교회의 비전에 대해 다시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의 철학과 사상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고 비전과 목적에 따라 움직이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비전 공동체라고 했다. 신뢰와 사랑이 바탕이된 구역이 공동체가 되고, 사역을 할때도 공동체를 형성해야 힘이 된다고 했다. 잠4:23의 말씀을 통해 제직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마음을 나누고, 교회의 비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자고 강조했다. 예수그리스도가 품으셨던 그 비전을 따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당부했다. 6시부터는 권사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육개장을 먹고 2005년 올해 한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직이 되기를 다짐하고 마쳤다.

청년부 사역팀 MT 소식

예년의 임원제도를 2005년부터 사역팀 체제로 개편한 청년부에서 사역팀 체제의 정착을 위해 사역팀별로 MT를 가지고 있다. 지난 주말 새가족 사역팀, 해외선교 사역팀, 그리고 소그룹 사역팀이 MT를 가졌고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행정 사역팀이 MT를 가졌다. 행정 사역팀은 기존의 임원 시스템을 대체하여 10여개의 사역팀을 이끄는 역할을 하며, 행정사역팀장이 그 외 사역팀장들의 리더로 각 사역팀장들과 함께 청년부를 이끌어 나간다. 담당 교역자와 장로, 부장집사, 전도사, 간사로 구성된 목회 사역팀은 이러한 청년 사역팀장들과 동역하여 팀 사역을 통한 청년부 사역의 비전을 실천해가고 있다. MT에서는 아직 선출되지 않은 사역팀의 팀장을 선출하고 팀원들을 사역에 배치하는 일과 사역팀의 사역 목표와 비전, 계획과 예산 등을 기획하는 모임들을 가졌다. 윤은성 목사는 각 사역팀들의 MT를 순회 방문하며 청년부 전체의 사역방향과 함께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4면에서 계속)

교사는 아이들을 향해 영원한 짝사랑을 한다

지난주일(1월30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소예배실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일일교사수련회가 열렸다. 각 부서의 교사들이 먼저 따끈한 국물과 김밥과 꿀을 먹으며 각자 자리에 앉은 후 찬양을 시작하였다. 잠시 후 담임목사의 인사말씀으로 수련회가 시작되었다. 문동학 목사는 청소년사역은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므로 교육부에 더욱 투자하자고 말했다. 교회학교가 학교패러다임을 벗어나 커뮤니티패러다임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리교회만을 강조하며 나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청소년사역을 위해 본이 되고, 다른 교회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자고 말했다. (3면에서 계속)



소년부 겨울수련회

“그리스도안에서 특별한 우리”

2005년을 맞이하면서 소년부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진급한 학생들과 소년부 전도사로 새로운 김종원 전도사와 새로운 교사들로 인하여 신나고 즐거운 한해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 교사들과 학생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소개의 시간을 가졌고 처음 만나는 학생들끼리 서먹서먹했던 분위기를 찬양예배와 및 게임을 통하여 서로를 알아갔다. 2월 25~26일 있을 소년부 겨울 수련회를 위해 “그리스도안에서 특별한 우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학습위주보다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과 함께 살아야 함을 배울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그리스도인 됨을 확인하고, 친구와 교사들과 함께 깊은 사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하나될 수 있는 소년부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다.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며 초등부 교사 MT 다녀와



2005년 1월, 새로운 아이들과 만나고 난 후, 지난 주 1월 23일은 아이들과 함께 처음으로 성경공부를 하는 시간이었다.

예배가 끝난 후 각 반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시작 전 아이들과 게임을 통해 새로운 친구에 대해 알아보고, 나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즐겁게 서로의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진 후, 같이 성경말씀을 읽고, 말씀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직 어리지만, 그 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교사에게까지 많은 도전이 되고 있었다. 교사들에게 아이들과의 첫 만남은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하는 시간이다. 교사의 생각과 언어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때때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아이의 소중한 꿈을 좌절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는 한 아이, 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와 눈을 맞추고, 이름을 기억하면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함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1월 29-30일, 초등부 교사들은 교사 M.T를 가기로 했다. 우리가 아이들의 영혼을 참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지혜와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생각할 때, 교사들의 기도와 말씀에 대한 준비없이 아이들을 주의 참 제자로 성장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교사들은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교사 MT를 통해 먼저 교사들 자신이 깨어지고, 헌신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져서 초등부 아이들이 주님의 제자로 성숙해 가는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목요모임

세상에 진한 향기를 풍기며 살 것인가? 툼툼 털고 세상 속으로 빠져갈 것인가?

2월 3일 목요모임에는 LA 교포이며 벨엘한인교회 부목사로 있는 손경일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손경일 목사는 앞으로 일본선교사로 파송된다. 그는 83년에 미국에 가기 전 신앙생활에 대한 걱정들과 달리 오히려 미국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다고 고백했다. 그는 먼저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사마리아’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 같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일본을 꼭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뱀새는 보이지 않아도 분명 존재한다. 영혼의 뱀새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며 남이 그 뱀새를 더 잘 알게 된다. 요즘 크리스찬은 ‘이순신 크리스찬’이 되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에 알리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뱀새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위에 널리 나타나야 한다. 고린도후서 2장 14~15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려준다. 첫째, 감사의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수 애양원(한센병 환우촌)에서 섬기던 손양원목사가 공산당에 의해 두 아들을 잃고 장례를 치르며 했던 ‘10대 감사’

가 바로 해야 할 감사이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희생하는 사람이 향기를 발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를 따지고 들면 ‘내가 할만큼 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 희생과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친지, 친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셋째, 사랑하는 사람이 향기를 발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어느 댕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향기를 세상에 풍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툼툼 털고 세상 속으로 빠져가겠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1면에 이어서)

탈북자 청소년 양육을 위한 여명학교 유대열 교목 말씀 전해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지만 무엇보다 유목사를 오늘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유학공부 학비까지 다 털어



유목사를 돕고 섬기며 신앙적으로 양육했던 한 일본 유학생의 삶과 헌신을 통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유목사는 자신과 같이 탈북자로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의 희망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다. 나의 나 된 것 · 우리의 나 된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인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아직도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기도로 지원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며 말씀을 마쳤다.

우리교회는 청소년을 섬기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 청소년 중에는 여명학교가 하고 있는 사역처럼 탈북자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남한에 적응하지 못하고 상처와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그들을 가슴에 깊이 끌어안아 영적으로 입양하는 영적 부모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청년부 목회팀과 사역팀 첫 모임 가져



주일 1월 30일 오후 5시에 4층 대회의실에서 청년부 목회팀과 사역팀의

첫 모임이 있었다. 앞으로 목회팀이란 청년부 담당 장로, 부장 집사, 담당 목사, 전도사, 간사를 포함하는 그룹이며 사역팀이란 행정사역팀을 비롯하여 (팀장 이상민) 그외 열 팀의 각 사역팀장들을 포함한다.

이 날 모임은 목회팀의 청년부 윤은성 담당 목사와 이강혁 전도사, 조인수 전도사, 이상호전도사 그리고 청년부 부장집사인 최상민 집사와 동현수 집사, 심명보 간사가 함께 하였다. 사역팀에서는 행정사역팀의 팀장 이상민 형제, 부팀장 옥윤화 자매, 서기 김혜주 자매, 회계 이환정 형제와 이

종후 형제를 비롯하여, 예배사역팀장 전현석 형제, 찬양사역팀(기존 새벽이슬)장 박성희 자매, 소그룹사역팀장 신정호 형제, 문서사역팀장(기존 편집부) 김재환 형제, 국제선교팀장 김장욱 형제, 해외선교팀장 나혜정 자매, 새가족사역팀장 정혜인 자매, 멀티사역팀장 이수정 자매, 문화사역팀장 서현욱 형제, 이동근 형제가 함께 하여 총 22명이 함께 하였다.

오늘 모임에는 '예배의 회복, 소그룹 사역의 정착, 사역팀의 활성화'라는 올해 주님의교회 청년부 세 가지 과제를 '청년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목표로 진행되었다. 첫 모임이기에 서로 얼굴을 익

히고 서로 맡은 자리를 격려했으며 이 날 각 사역팀장들은 각 사역팀의 일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미리 준비하였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는 함께 토론하여 계획을 확정짓고 각 팀당에 대한 예산 책정을 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부 사역이 소수의 임원체제 중심이었던 것에서 올해부터 여러 사역팀 중심으로 모든 청년부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한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가 풍성해지길 기도한다. 청년부 목회팀과 사역팀은 앞으로 매달 첫째주 주일 오후마다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을 예정이다.

선교보고

태국 지진해일
피해복구 현장에서

성탄절 다음날이자 주일인 2004년 12월 26일 오전 10경 태국의 푸켓섬과 팡아주 해안을 덮친 쓰나미는 엄청난 피해와 슬픔을 가져다주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1월 25일까지 태국 내 지진해일 사망자는 모두 5374명, 실종자는 3716명으로 집계되었다. 대다수 희생자는 푸켓섬에서 차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팡아주에서 발생했다. 쓰나미는 해안가의 평온한 마을들을 초토화했다. 팡아지방의 작은 어촌인 남캄 마을에는 6000여명의 어린이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마을은 형제도 없이 흩과 쓰레기더미로 변해버렸다. 살아남은 주민은 병원으로 수송되거나 대부분 '방무앙' 마을의 피난민촌으로 이송됐다. 바다 집시족인 모켄족 등 소수 민족들의 생활터전인 가난한 어촌마을에서는 쉬는 날이라 집에 머물고 있었던 많은 여인들과 아이들이 죽었다고 한다. 태국의 복구작업은 지역별로 다르다.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푸켓은 총리가 직접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피해가 컸던 팡아주(州)에서는 시신 수습 등 실종자 수색은 모두 포기한 상태이고 참사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데도 1년여가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 난민촌에는 600여개의 텐트가 마련돼 한 가족당 텐트 하나씩 할당받아 살고 있다. 텐트가 작

아 4~5명 가족이 새우잠을 자거나 다른 막사 밑에서 자기도 한다. 이곳에 수용된 남캄 주민은 모두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며, 가정마다 한 둘 이상 씩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안타까운 사연을 지니고 있다. 이번 재해로 인해 수많은 고아들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조사된 팡아지역의 고아들은 총 644명에 이른다. 부모가 모두 이번 쓰나미에 희생되었다.



홍경환선교사는 몇 년 전부터 이곳 팡아지역과 푸켓지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바다집시족인 모켄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오고 있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라와이 마을' (이 지역은 2003년 본교회 의료선교팀이 방문한 지역이기도 하다)에서는 그 마을 족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장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조그만 예배처소도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 해일로 홍경환선교사의 사역은 그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구호사역으로 집중되었다. 이번 일이 계기로 모켄족에게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외의 구호단체와 교회들이 앞을 다투어 단기선교와 구호사역을 위해 속속 재해지역으로 도착하고 있었고 일부팀은 사역을 마무리하고 돌아가고

있었다. 홍경환선교사는 이들 팀들과 함께 하면서 구호와 복구사역을 총지휘하고 있었다. '카우락 재해복구 지원본부'를 마련하여 지원본부 상황실 및 단기선교팀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주님의교회에서 보낸 구호헌금은 이곳에서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홍경환선교사는 사고의 중심지역인 남캄마을과 크작마을에 생필품과 학용품, 의료봉사, 임신타아소 및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자원봉사자들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홍경환선교사의 지휘를 잘 따르고 있었다. 건장한 단기선교팀 청년들은 홍경환선교사와 함께 중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재해지역에서 무너진 집들의 잔해를 치우고 청소하면서 주민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였다. 지금까지 예수전도단 사역팀과 연동교회단기선교팀을 비롯하여 6개 팀이 다녀갔고 이 후로도 계속 사역팀이 도착할 예정이다.

홍경환선교사는 앞으로 팡아지역의 중심에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기독교사회봉사센터'를 설립하여 고아원과 타아소, 그리고 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리고 전했다.

홍경환 선교사는...

1982년 장로회신학대학 신학과에 입학하여 신학수업을 시작하였고 1989년 2월 졸업한 후 태국선교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던 중, 1990년 태국 치앙마이 지역에 1년간 단기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왔다. 그 후 장로회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신학수업을 계속하였고 1994년 2월 졸업하였다(M. Div). 이어서 세계선교신학대학원에서 선교사 수업을 받으면서 선교후원교회를 찾기 위해 기도하던 중 선교학교수님의 소개로 주님의교회와 연결이 되었다. 이후 홍경환선교사는 주님의교회에 2001년 11월 부임하여 부목사로 사역하던 중 2002년 7월에 태국선교사로 파송되었다. 이 때 주님의교회는 홍경환선교사를 3년간 선교사역 전액을 지원하기로 총회 세계선교부와 약정을 맺었다. 태국으로 파송된 홍경환선교사는 언어습득을 위한 훈련을 하던 중 '태국기독교단(Church of Christ in Thailand)' 으로부터 '푸켓과 팡아지역' 등 태국 남부지역에서 선교사역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사역지를 '푸켓과 팡아지역(푸켓 이북 지역)'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태국에서는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사역할 때 '태국기독교단(CCT)'의 지시와 협조하에 사역하게 된다. '태국기독교단'의 산하 소속 노회인 '17노회'에서는 또한 푸켓한인교회의 사역을 도와줄 것을 의뢰하여 왔다. 이에 홍경환선교사는 푸켓과 팡아지역을 포함한 태국남부지역 전체를 담당하는 선교사로서 사역하게 되었고 푸켓한인교회 사역을 함께 하여 온 것이다. 홍경환선교사는 푸켓지역은 물론 푸켓 이북 지역인 팡아주 해변가에 살고 있는 바다집시족인 모켄족 복음화와 태국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해오고 있다.

눈썹인 광림수도원에서
교사수련회

1월 29일, 30일(토, 일) 1박 2일동안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림수도원에서 유년부 교사 수련회를 가졌다. 모두 18명이 참여했었다. 교사들은 작년 이맘 때에도 같은 장소에 갔었는데 눈이 와 있어서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았기에 눈이 적당하게 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교사들의 마음을 헤아리신건지 정말 그 날 아침 눈이 펄펄 내리기 시작해서 도착할 때엔 알맞게 쌓여 있었다. 오후 3시가 넘어서 도착했는데 먼저 짐을 풀고 산책을 했다. 목사의 길을 따라 하얀 눈을 밟으며 걸어가는 교사들은 미끄럼도 타고 하얀 눈길에서 사진도 찍으며 추억의 바깥을

을 남겼다. 오후 5시에 저녁식사 시간을 가졌는데 윤좌원 장로는 격려차 방문해주어 더욱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다. 6시부터 방에 모여 앉아 유년부 전도사를 통해 겨자씨 비유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우리가 겨자씨와 같이 작은자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는 힘차게 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게 된 은혜의 말씀이었다. 오후 7시부터 유년부의 2005년도 사역에 대해 함께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짧게 할려고 했던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든 교사들의 진지한 참여로 인해 넉넉하게 회의를 할 수 있었다. 또 칭찬 세례식과 레크레이션을 시작하기로 했다. 먼저 칭찬 세례식을 시작했는데 18명의 교사들이 각자가 18명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또 칭찬을 하는 것이라 참으로 긴 시간이 흘러가버렸다. 레크레이션 준비한 교사들이 책 한 권을 다 외우다시피하여 준비했는데 칭찬하다 밤이 새버렸다. 서로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칭찬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는 자신에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

의 현상을 발견하였고 또한 오해를 받

(1면에 이어서)

교사는 아이들을 향해
영원한 짝사랑을 한다

이를 위해 현 교사들이 더 헌신하고, 더 많은 교사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그리고 교사들 안에 큰 부흥이 일고, 서로 잘 협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하였다. 다음으로 흥민기목사가 현재 사역하는 전도사와 새로 부임한 전도사를 소개한 후 말씀을 전했다. 내가 가르치는 한 아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교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심어져서 아이들과 적극적으로 관계 맺고 친해지길 권하였다. 그리고 올해 3가지를 지켜달라고 당부하였다. 첫째로 '아이들의 이름을 철저히 외울 것', 둘째로는 '한 주에 적어도 한 번씩 아이들에게 문자나 전화를 한 것', 셋째로는 '아이들이 해사를

하면 같이 참여해줄 것'이다. 아이가 변하면 가정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다음세대가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 절대로 아이들을 포기하지 말기를 부탁하였다. 교사가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은 영원한 짝사랑과 같은 것이므로 교사들이 아프고 가슴앓이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다. 좋은 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이 교회로 와서 오아시스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전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 '교회학교가 어른들 예배를 위해 아이들을 잠시 맡기는 타아사역이 아님을 명심할 것'과 '교사는 봉사를 하는 성도가 아니라 교역자와 함께 사역을 하는 사역자임을 믿을 것'과 '결과 중심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중심적인 교육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한 찬송과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가졌다. 찬송가 404장을 부른 후, 하나님께서 교사들 각자에게 아이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는 눈과 영혼을 주시기를,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였다.

영어예배! 3월27일부터 시작

2005년은 주님의교회에서 매우 흥분되는 해이다. 다양한 사역들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새로 시작되는 사역중에 영어사역(English Ministry)이 있어 특히 주목된다. 영어사역은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익숙한 이들, 영어권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언어적인 불편함으로 인해 신앙생활에서 소극적이었던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가서려 계획하며, 홍민기 목사님과 나현수 전도사가 열정적으로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영어사역은 주일 영어예배를 중심으로, 소그룹모임과 다양한 공동체 모임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현재,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둘 모여 영어사역을 위한 기도모임을 계속하고 있다. 주일영어예배는 3월27일 시작할 예정으로 설 지난 주일부터 가시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주 얼굴 보이소서!!!”

예수전도단 Worship Conference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 동안 안성에 있는 사

랑의교회 수양관에서 1,000여명의 참가자들과 100여명의 Staff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는 이 컨퍼런스는 각 교회에 있는 찬양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자로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 좀더 성숙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 오후 시간에는 윤주형 목사의 ‘찬양인도자의 자질’을 포함한 총 18개의 주제별 강의를 개설하여 찬양팀 운영에 필요한 파트별 레슨을 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 주강사로 초청된 오대원 목사(예수전도단 설립자, 미국명 David E. Ross)는 총 5회에 걸친 말씀선포를 통해 ‘화요모임’의 시작배경과 과정, 그리고 부흥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특별히, 금요일 오전시간은 역대하 7장 14절(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에 기초하여 참가자 전체가 금식하면서 한국의 부흥과 한반도의 회복을 위해 예배하였다. 특히, 이 예배는 제주열방대학(U of N) 예배문화센터에서 팽과리와 장고, 북과 같은 우리의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인도했다.

(1면에 이어서)

청년부 사역팀 MT 소식

청년부의 사역팀 구조는 교회 장년부의 위원회와 사역팀 구조와 유사한 체제로 구성하여 장년 사역팀들과의 연합 사역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다. 윤은성 목사가 조인수 전도사와 심명보 간사와 협력하여 새가족 사역팀(팀장:정혜인)과 소그룹 사역팀(팀장:신정호)을 통해 소그룹 리더를 양육하며, 새가족 양육자 훈련과 새가족 등록과정을 섬기고 있으며, 이강혁 전도사가 예배 사역팀(팀장:전현석), 찬양 사역팀(팀장:박성희)과 문화 사역팀(팀장:서현옥)의 영성훈련과 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상호 전도사가 국내선교 사역팀(팀장:김장욱)과 해외선교 사역팀(팀장:나혜정)과 함께 세계선교 기도회와 양육을 섬기고 있으며 한창호 간사가 문서 사역팀(팀장:김재환)과 멀티미디어 사역팀(팀장:이수정)을 훈련하고 있다. 이영자 담당 장로와 동현수, 최상인 부장 집사가 행정 사역팀(팀장:이상민)과 교육지원팀(팀장:이동근)을 지원하며 청년부 운영의 전반을 이끌고 있다. 올 한해 팀 사역을 통한 청년부 운영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도

부담하게
고난을 알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죄가 있어
매를 막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알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니라.

‘리브가의 신희일기’ 30대 사역의 출발



2005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30대 사역은 그 첫 번째 사역으로 ‘리브가의 신희일기’를 준비하고 있다. ‘리브가의 신희일기’는 2003-2004년도 주님의교회에서 결혼한 신희부부를 초대, 한 자리에 모이는 만남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다수의 성도들이 서로 비슷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같은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교통함이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서로 친밀한 만남의 고리를 만들기 위

해 2003-2004년 주님의교회에서 결혼한 신희부부라는 한정된 소수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주님의교회에는 1000여명에 달하는 30대의 미혼과 기혼세대들이 있다. 30대 사역은 이 행사를 시작으로 이들을 기도회, 30대 예배/세미나, 구역모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다양한 모임에는 모든 30대들이 참여할 수 있다. 30대 사역의 목표는 숨어있는 교회 안팎의 30대를 이끌어 말씀과 교제를 통해 교회와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지도자로 서로를 양육하게 함과 동시에 진정한 신앙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리브가의 신희일기

일시: 2005년 3월 6일(주일) 오후 5시

장소: 3층 소년부실

*식사가 준비됩니다. 유아를 동반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진행중 수유와 기저귀 교체가 가능합니다).

금홀위원회

금홀사역위원회에서 올해 신설된 사역팀에 동참하실 교우들을 아래와 같이 찾고 있습니다. 고난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는 이 일에 함께 하실 분들은 주저없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19사역팀

(연락처: 서인석안수집사 011-9899-6505)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사역입니다. 비상출동이 가능하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승합차 트럭 등을 비상시 제공 혹은 운전가능하신 교우, 간호사, 약사, 주택건설 및 보수작업의 경험이 있으신 교우, 주택의 전기배선 및 수리가 가능하신 교우, 가전제품 수리가 가능하신 교우,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에 경험이 있으신 교우를 찾고 있습니다.

2. 결식아동 사역팀

(연락처: 김선례권사 016-724-4430)

결식아동을 파악하여 그들의 인격과 자존심을 충분히 보장하는 가운데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역입니다. 사랑과 깊은 배려가 있으신 분을 찾습니다. 영양관리사, 현재 결식아동을 위해 사역하시는 교우 및 식사 제공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실 교우를 찾습니다.

3. 소년소녀가장 사역팀

(연락처: 고유자집사 011-9591-0419)

소년 소녀가장이 일어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는 사역입니다.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가정과 함께 하실 구역을 찾습니다. 단,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각오를 하신 사역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가정은 부부가 함께 참여해야 하며, 구역으로 참여하실 경우도 한 가정이 주축이 되어서 참여하셔야 합니다. 기타 지원그룹으로 학습을 도와 줄 국어, 영어, 수학, 역사 관련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4. 단전단수가정 사역팀

(연락처: 김기성집사 019-234-4248)

단전단수가정을 파악하여 돕는 사역입니다. 적극적으로 활동적인 교우를 찾고 있습니다.

5. 일용근로자 사역팀

(연락처: 조경주집사 011-285-3285)

일용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연결해주는 사역입니다.

6. 노숙자 사역팀

(연락처: 임기택집사 016-214-1534)

노숙자들이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역입니다.

★ 위의 4,5,6번의 사역은 별개의 사역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사역입니다. 서로 긴밀히 연결된 가운데 쓰러져가는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하는 사역입니다.

7. 탈북자 사역팀

(연락처: 설영운집사 017-361-2233)

탈북자들의 한국내 적응과 관련하여 돕고 지원하는 사역입니다. 관련하여 전문적인 시각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하여 사역할 꿈과 소망이 있으신 분을 모집합니다.